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5.40원 하락한 1,142.00원에 마감

19일 환율은 전일대비 5.40원 하락한 1,142.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40원 하락한 1,144.00원에 개장했다. 위안화 강세에 연동하며 갭다운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1,140.50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하였다. 중국 3분기 GDP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위안화 강세가 주춤하자 레벨을 소폭 회복한 뒤 장중 내내 1,142원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전일대비 5.40원 하락한 1,142.00원에 마감하였다. 장중 변동폭은 3.50원이었다. 시장평균환율은 1,142.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83.13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44.00	1144.00	1140.50	1142.00	1142.2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88.25	1088.25	1080.85	1082.27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44.63	1346.70	1336.24	1344.03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7	-0.55	-1.76	-3.36
	결제환율(수입)	0.3	0.49	0.49	-0.1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위안화와 국내증시에 주목하며 1,140원대 지지력 테스트 예상

금일 환율은 1,140원대 초반 중심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42.00원) 대비 1.10원 내린 1,141.05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위안화 강세 기조 및 위험선호 훼손에 제한적인 하락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치를 하회하였으나 9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이 호조를 보이자 여전히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되며 위안화 강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위안화 움직임에 연동하는 점 및 수출업체 네고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일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추가 부양책 합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미국 및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 가중되며 위험선호심리 훼손된 점은 낙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37.75 ~ 1144.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43.99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10원 ↓
	■ 美 다우지수 : 28195.42, -410.89p(-1.4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4.99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207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